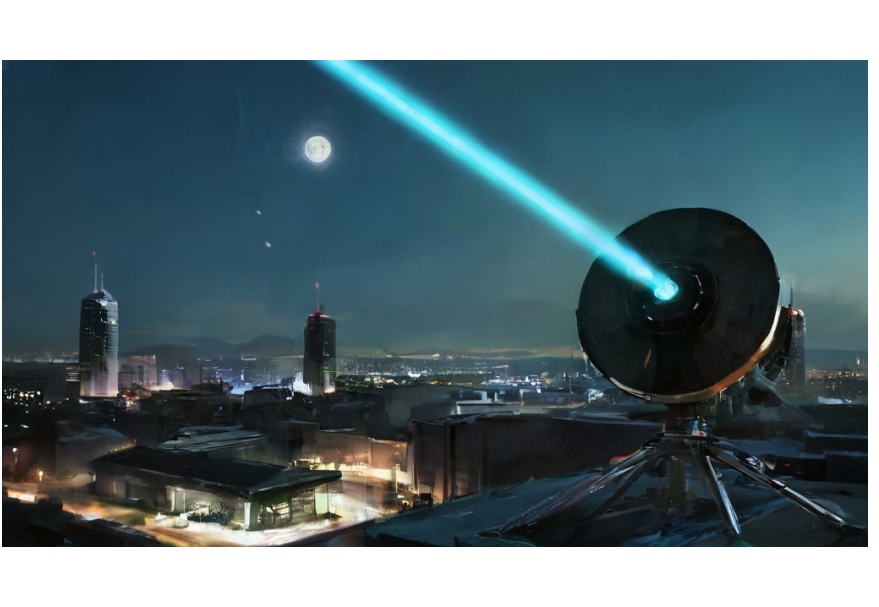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9

❖



오리엔티스 기지의 메인 컴퓨터실에서 거대한 텍스트가 떠올랐다.

[휴먼넷 개시]

오리엔티스 기지 옥상에 설치된 거대 안테나가 작동을 개시했다. 안테나의 접시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작동 준비를 마친 안테나에서 강한 빔이 발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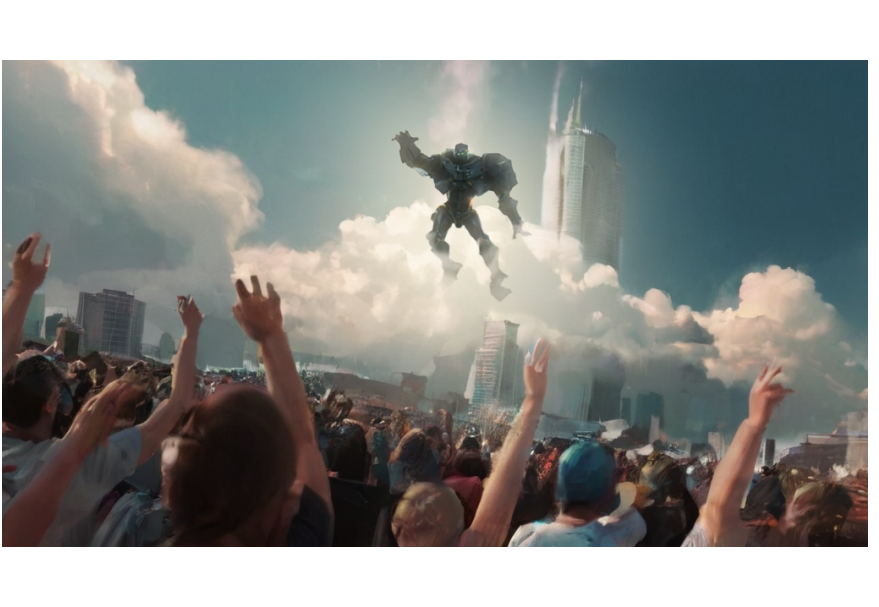
안테나에서 발사된 빔은 순식간에 스타링크 위성에 도달했다. 스타링크 위성이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명령에 따라 연산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발생했다.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군인, 회사에서 담배를 피던 직장인,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던 주부, 의회에서 말싸움을 하던 의원,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대통령, 전경련 대표, 참모총장 들의 눈동자가 검게 변했다.

클론 칩을 심은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대열을 갖춰 움직이기 시작하자, 심상치 않은 징후를 느낀 클론 반대 집회의 시위 행진이 더욱 거세졌다. 클론 반대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옳았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리라. 그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광신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하늘 위에서 빛을 발하는 인간 형상의 존재를 보며 소리쳤다.

"휴거다! 우린 구원을 받는 거야!"



천사가 강림했다고 외치는 사람, 예수가 재림하셨다고 외치는 사람 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클론 반대 시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빛나는 형상, ZZBB51에게서 아주 짧게 붉은 빛이 번쩍이자 클론 칩을 심지 않은 사람들이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휴거가 시작되었다며 평온한 미소를 짓는 사람, 비명을 지르는 사람 들이 허공에서 무질서하게 떠올랐다. 은성이 콕핏 안에서 어떤 조작을 가했는지 ZZBB51이 다시 한 번 짧은 시간동안 붉게 빛났다. 그러자 허공에 뜬 사람들이 아주 강한 힘으로 바닥에 내리꽂히며 사방이 피와 내장, 그리고 떨어져 나간 살갗들로 범벅이 되었다. 흡사 지옥의 풍경이었다.

❖

휴먼넷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빈민촌 화장터에 위치한 DR. NEX의 기지 안도 분주해졌다. 코카가 시스템을 조작하며 소리쳤다.

"인구의 80퍼센트가 모두 조종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
"어떻게 막아야 하지?"
"한재호가 시스템의 주인이 된 이상, 컴퓨터를 파괴하는 수밖에!"

모니터 위로 떠오르는 데이터를 확인하던 코카가 다급히 말했다.

"ZZBB51이 다가오고 있어, 네가 막아야 해, 동녘! 난 서현에게 쉴드를 채워주고 있을 테니까."
"알겠어."

한참을 달린 끝에, 동녘은 화장터 옆에 세워둔 ZZBB52 콕핏에 탑승했다. ZZBB52를 작동시킨 순간, 굉음과 함께 ZZBB51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동녘의 콕핏 안에 은성의 영상이 떠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나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넌 한재호잖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바람에 은성의 인격과 뒤섞이고 말았거든. 날 죽이는 건 은성도 죽이는 거란 뜻이지. 어차피 능력도 안 되어서 죽일 수도 없겠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ZZBB51의 주먹이 ZZBB52를 향해 내리꽂혔다. 동녘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반응했다면 ZZBB52의 머리 파츠는 도륙이 나고도 남았을 터였다. 동녘이 반격할 틈도 없이, 어느새 지상에 내려온 ZZBB52는 화장터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집어던졌다.

동녘은 ZZBB52를 하늘에 떠올리는 것으로 날아오는 자동차를 피했지만, ZZBB51도 함께 떠올라 ZZBB52에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 동녘이 탄 ZZBB52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ZZBB51이 바닥에 쓰러진 ZZBB52를 발로 짓밟으려는 찰나, ZZBB52가 일어나 빈틈을 가격했다. 크게 한 방을 얻어맞은 ZZBB51이 허공에서 휘청였다.

기세를 몰아 ZZBB51이 공격을 이어나가려는데, ZZBB51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디로 갔지? 당황한 동녘이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뒤에서 강력한 파열음이 울리며 강한 충격이 콕핏 전체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동녘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기침을 하자, 입에서 피가 흘렀다. ZZBB51이 뒤에서 타격을 가해, ZZBB51이 앞으로 고꾸라진 것이다.

동녘이 콕핏 안에서 비틀거리는데, 콕핏 안에 은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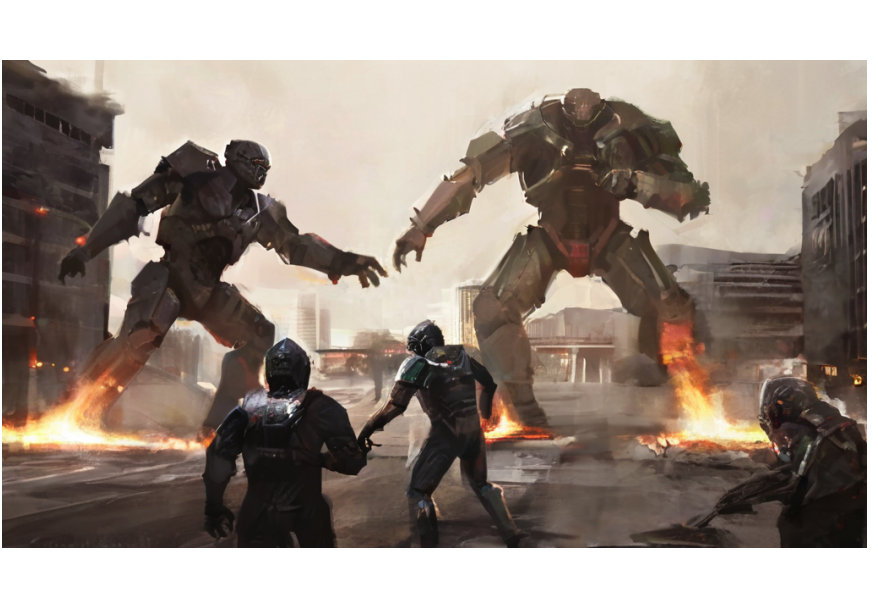
[네 아들을 엔지누스로 만들었던 걸 잊었나? 너 스스로는 엔지누스가 못 된 모양이군.]

ZZBB52이 무릎을 꿇고 앉아 ZZBB51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ZZBB52과 신경이 연결된 동녘은 마치 자기 목이 졸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ZZBB52의 배를 걷어차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한 동녘이 은성에게 소리쳤다.

"이러라고 널 엔지누스로 만들었던 게 아니었다! 그들과 싸우라고 만든 것이지, 그들의 개가 되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
[신의 섭리를 배신하는 건 죄악이다!]

은성의 주위로 일곱 개의 캣츠아이가 붉게 빛나며 떠오르는 것을 발견한 동녘은 주변을 살폈다. 눈동자가 검게 변한 빈민촌 사람들이 두 아머 유닛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

동녘이 ZZBB52를 움직일 때마다 빈민촌 사람이 튀어나와 동녘을 방해했다. 인간 방패가 따로 없었다. 빈민촌 사람들을 앞세운 은성의 ZZBB51이 동녘의 ZZBB52를 계속 위협했다. 동녘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뒷걸음질을 치는 것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빈민촌 사람이 죽거나 다칠 테니까.

그렇게 화장터까지 떠밀린 ZZBB52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생각에 ZZBB51을 향해 공격을 가할 자세를 취했다. ZZBB51이 ZZBB52를 향해 팔을 내밀었다. 뭐지? 동녘이 미처 상황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ZZBB51의 팔에서 번쩍 빛이 나더니 굉음과 함께 플라즈마 빔이 발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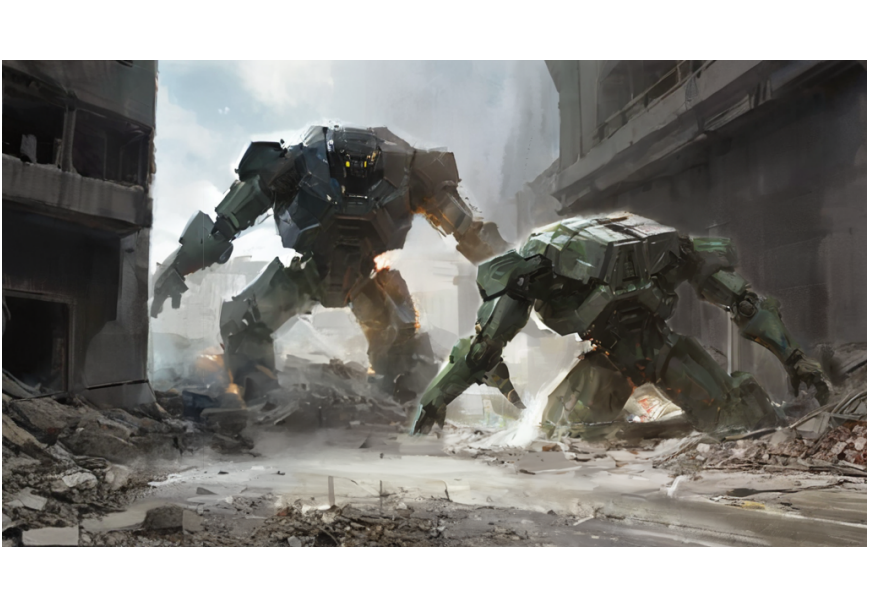
금속이 불타며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ZZBB52의 기체가 화장터 위로 쓰러졌다. 기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화장터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DR. NEX의 기지가 외부에 드러났다. 코카, 서현, 그리고 덕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뚫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덕현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덕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동녘이 기합 소리를 내며 ZZBB52를 일으켜 세웠다. 콕핏 안의 모니터는 올라가는 싱크로율을 표시했다.

100%… 150%… 200%….

ZZBB52는 은성이 내세운 인간 방패를 피해, ZZBB51에게 크고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 ZZBB51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은 채, ZZBB52의 연속기가 이어졌다. 속수무책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온전히 받으며, 당황한 은성이 소리쳤다.

[폭주 상태라고? 당신도 엔지누스였던 건가?]



Continued to ep.30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